



남원 진군환 송동면장, 재해 취약시설 점검 실시

남원시 진군환 송동면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송동배수장, 소화천, 급경사지, 배수로 및 배수시설 등 재해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 관리 상태와 위험요소를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경찰서, 여름철 재난 대비 유관기관 협업 강화

순창경찰서(서장 박삼서) 경비정보안보과는 올해 장마가 본격화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수 취약시설과 교량, 하천 수위, 제방 및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집중호우 발생 시 차량 및 주민 통제 방안 등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차단시설과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섬진강 화천교를 중심으로 하천 수위 변화와 제방 및 교량 구조물의 안전상태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읍,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 작업 나서

임실읍이 다가오는 우기철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 풀베기 작업에 나섰다.

지난 6월 29일부터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관문 도로, 간선도로, 농어촌도로 등 총 49km 구간을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 중이며, 특히 집중호우 시 배수를 방해하는 갓길 잡목과 덩굴류 등을 집중 제거해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송기찬 임실읍장은 "도로변 풀베기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가시거리 확보를 위한 필수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임실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 몽골 달란자드가드시와 우호협력 체결

기존 농업·교육 분야 교류... 향후 의료·문화·관광·첨단 농업기술까지 협력 다짐

남원시는 지난 6일 척트 데너터르지 달란자드가드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남원시-달란자드가드시 우호협력 체결 실무 협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달란자드가드시는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몽골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해 총 299명의 인력을 도입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고,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몽골 4개 교육기관 협약 체결, 전북대 글로벌 대학 입학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실무 협의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국립의전원 설립 연계 의료인력 양성 및 한방·치유 웰니스 투어 연계 △문화·관광분야: 남원 춘향제 및 달란자드가드시 낙타 축제 등 전통축제 상호 방문 교류 △농업기술 및 우수 농산물 분야: 스마트팜 기술 전수 및 K-푸드 연계 농특산물 유통 협력 △산업 조경 기술 분야: 기후 맞춤형 수종 식재 기술 교류 △교육·체육분야: 유소년 스포츠 교류,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몽골 말 자원 관리·재활 기술 상호 교류 추진 등이다.



양창모 남원시장은 "이번 실무 협의는 그동안 이어온 농업, 교육 분야의 교류를 넘어 의료, 문화, 관광, 첨단 농업기술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서,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예방 간담회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이여정)는 지난 3일 장수군 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교통안전간담회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르신들을 관리 지원하는 장수군 시니어클럽 관계자 18명을 교통안전반장으로 지정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장수지역 특성상 고령층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 실버카 등을 이용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교통안전반장들에게 도로 횡단 시 서다·보다·감다 보행 3원칙을 적극 안내하고 작업 시에도 차량 통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니어클럽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교통안전반장을 중심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청소년이 만드는 팝업축제... 11일 열린다

청소년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 공연·물놀이·체험으로 만드는 특별한 여름 축제

장수군은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첫 번째 팝업축제 '여름이 왔섬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축제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여름의 활기와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담은 '여름이 왔섬머'를 축제 명칭으로 선정했다.

'우리의 여름, 우리가 만드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고, 또래들과 함께 소통하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으로 마련된다.

축제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학생대표의 인사말과 격려사에 이어 장계청소년만족축제청소년기획단의 합창,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밴드와 댄스, 히든싱어 무대 등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행사장에서는 먹거리 부스와 체험부스, 물놀이 콘텐츠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또한 경품추첨을 진행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름이 왔섬머' 청소년 팝업축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장계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며, 청소년 공연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먹거리 부스와 이벤트 등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벌집 급증에 벌쏘임 예방 안전수칙 당부

남원소방서는 최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주택가 및 야외에서의 벌집 제거 출동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벌 쏘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는 7월부터 벌의 산란기가 겹쳐 개체 수가 급증하며 벌들의 공격성도 매우 강해진다.

특히 처마 밑,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등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벌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원소방서 대원들은 소방 펌프차의 고압 방수를 활용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며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벌 쏘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거나 살충제를 뿌리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하고,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 등 어두운색에 공격성을 보이므로, 야외 활동 시에는 가급적 밝은 계열의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로타리클럽, 청소년 밥차후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로타리클럽(회장 이재근)이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인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전주로타리클럽은 지난 3일 사단법인 한국아름다운공동체(이사장 두재균)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청소년 사랑의 밥차'를 찾아 로타리재단 지구보조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간식·식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엔 집에서 혼자 식사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급식 지원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눴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66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86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000
	익산지사 658-98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